

# 주일가정예배 순서

[성령강림주일]

2021년 5월 23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 **인도자**

-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사도행전 2:2-4)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이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 성결의 은혜로 세상에 나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447장** ..... **다같이**

1.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2.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속에 날 인도하소서
3.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4.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 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마태복음 9:9-13 ..... 인도자**

- 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설 교 ..... “세리 마태” ..... 인도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459장 ..... 다같이**

1.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2.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3.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 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 하리라  
기쁜 찬송 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3.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좌석 20%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중앙교회 예배당 330명) 현장 예배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리 마태”

(마태복음 9:9-13)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실력도, 성품도, 가문도, 출신지도 거기다가 믿음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제자로서 문제가 많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마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득실에 참으로 민감합니다. 내가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해서 요즘 교회마다 여선교회 회장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서로 울면서(?) 하지 않으려 한답니다. 뭔가 손해보고 잃는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려는 마태의 이야기는 이런 우리에게 뭔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한 말씀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마태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먼저 풍성한 수입을 잃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자기 백성들이야 어떻게 살든 제 한 몸 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약속한 것보다 항상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하루 두끼 먹으면 행복한 날이었던 그 당시 돈에 대한 유혹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때였습니다. 마태는 그 풍성한 수입을 잃었습니다.

그는 또 안정된 직장을 잃었습니다. 누가 뭐라하든 그 때나 지금이나 세관은 안정된 직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특권과 지위를 잃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당시의 유다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로마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뒤에서 많은 소리를 해도 사실 감히 넘볼 수 없었습니다. 죄인, 창기, 매국노,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이런 특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견뎌왔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름심에 응답한 그날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잃은 마태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먼저 마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갈등의 끝을 보면 거기엔 둘을 만납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우리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이 갈등은 사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니고데모도, 또 다른 세리였던 삭개오도, 그리고 여기 마태도 공히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관의 자리를 잃고 붓을 얻었습니다. 그 붓으로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마태가 기록한 5장에서 7장이라고 합니다. 각종 외국어와 방언을 구사했던 마태는 신약성경의 맨 앞, 복음서의 맨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남겼습니다.

이 마태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 당시 유대사회에서 강도, 창기,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받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9절에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태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전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요15:15)하셨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이름만을 기록했는데 유독 자기의 이름을 기록할 때 전직을 붙여서 ‘세리 마태’라 기록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말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전직을 감추지 않고 영원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을 남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바꾼 나를 어리석다 하지 말라’.

- 1) 집에서의 편한 복장 보다 단정한 복장을 입습니다.
- 2) 본인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 3) 온라인 예배는 10분 전에 미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화면과 볼륨을 준비합니다. 가급적 화면이 큰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시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고 컴퓨터 같은 가장 큰 화면 하나로 함께 드립니다.
- 5) 주일 가정예배서를 이용하시는 가정은 미리 가족 수 만큼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만 설교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 6)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 7) 온라인 예배 참석과 이름을 남깁니다.
- 8)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9) 코로나19사태의 퇴치와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